모로 가지만 서울도 안 간다

(호세아 14:1~9)

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모로 가지만 서울도 안 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모로 가지만 서울도 안 간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혹은 "모로 가나 기어가나 서울 남대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되었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입니다. 모로 간다는 말은 빗겨서 간다, 대각선으로 간다는 뜻으로써 이미 있는 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모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횡행(橫行)하다'의 의미를 가진 말로써 앞으로 바로 걷지 않고 게처럼 옆으로 걷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 속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모로 가면 서울에 못 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에 이를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에서 육로를 통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외엔 없습니다. 대관령을 넘든지 양양이나 속초 쪽으로 가서 새로 생긴 고속도로를 타야합니다. 모로 가고자 하면 대관령 골짜기에 막혀서 서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입으로는 서울을 간다고 할지라도 대관령 골짜기를 향하거나 반대로 바다 쪽을 향한다면 실제 마음은 서울을 갈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발길을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의 발길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모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한 길이 있음에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모로 가느냐고 묻는다면 “모로 가도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릉에서 서울 가는 길은 두 가지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하나의 길은 예수님이 내신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동선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의 발걸음이 모로 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한 길을 놔두고 모로 가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본다면 ‘귀착점(歸着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만 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도달해야 할 귀착점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면 귀착점을 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내신 길 외에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모로 가는 선민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이러한 호소에 대해 “모로 가도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대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모로 가면 서울에 도달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께로 도달하기는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선택과 제멋대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이미 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 택한다는 의미이지만 제멋대로는 스스로에서 비롯된 의지를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은 선민의 귀착점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하나로 묶는 주제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바 있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동침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체험적 앎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접촉하여 느낌으로 아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매듭지어집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부분입니다. 2절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고 하였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똑같이 ‘여호와께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다소 다른 의미입니다. 1절의 ‘여호와께로’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아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2절의 ‘여호와께로’에서는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절의 엘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시 번역하자면 ‘여호와를 향하여 오라’는 말입니다. 1절의 아드는 방향을 포함하여 어떤 지점에 도착하여 머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향하여 와서 여호와께 귀착하여 이제 다시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말라’는 말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부산행 열차를 탄 사람은 도중에 천안에서 내릴 수도 있고 끝까지 가서 부산에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산행 열차를 탔다는 것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산 가는 사람이 부산행 열차를 탔을 경우에 부산은 최종 귀착점을 가리킵니다. 부산으로 가는 사람과 부산행 열차를 탄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부산을 가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행 열차를 탔다가 중간에서 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길에 핀 백합화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고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접촉하는 ‘야다’로써의 앎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주기도문에서도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님에도 굳이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써 찾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이 하늘로 간다는 것은 곧 세상과 결별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배우자를 떠나고 자녀를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건강을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야 합니다. 목사님이라면 심지어 목회 현장이나 선교 사업에 대해조차도 마음은 떠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은 부산행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도달하는 상태가 됩니다. 부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부산행 열차를 탔을지라도 천안이나 대구 혹은 경주에서도 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부산을 귀착점으로 삼은 자들만이 끝까지 부산을 향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귀착점으로 삼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온전히 부를 수 있습니다. 중도하차 할 바에야 애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에게서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은 무척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의 이름을 귀착점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부활과 승천에도 참여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따라감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중도하차하여 풍요와 다산에 마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부자 되고 부흥하기 위함이므로 애초에 하나님께 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풍요와 다산으로 가기 위한 길로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말 그대로 모로 가는 길이었고 제멋대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선민들에게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호소하지만 선민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내신 길 뿐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으므로 성전의 생활화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성전 생활화를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갈 마음은 없고 모로 가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 또한 풍요와 다산이라는 귀착점을 향하는 길일뿐입니다. 우상숭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선민들은 바알숭배를 통해 부자가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1절의 하반부를 보면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바로 모로 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방민족은 하나님을 계시 받지 못했기에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길로 대관령을 넘어가는 길을 제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마음이 향할 귀착점으로 하나님 자신을 지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멀쩡히 있는 길을 버리고 대관령 골짜기로 들어가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나는 행동이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는 불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마음이 하나님이 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가서 머물고 있는 것이 불의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가족에게 가서 머물고 있다면 불의입니다. 스스로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상황이 개선되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불의입니다. 이런 간구를 할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인간의 원죄에서 비롯된 불의일 뿐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을 향하는 선민의 불의는 더욱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배신당한 사람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위로를 얻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설령 온 세상이 이 사람을 가엽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기도는 1절의 말씀대로 엎드러져야 할 불의일 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헤어진

애인을 여전히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가 방향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족을 귀착점으로 삼아 머물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2절 하반부에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의 마음이 불의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불의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사업을 귀착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을 마음의 귀착점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가 됩니다. 목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한 분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외국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2개월 간 교육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으로 의료적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환자들 중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도 계셨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진상으로 꼽는 악질 환자들은 다 목사이고 선교사들이라고 합니다. 평신도들은 말기 암에 걸렸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하늘나라로 보내기에 주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목사나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많기에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장담한다고 합니다. 하늘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주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그 하나님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되시는 일체의 사건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늘로 가고 싶어 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없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아닌 가족이 투병하게 된 경우에도 병원에서 진상을 떠는 사람은 목사님들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선교사님이 직접 보고 간호사들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목회나 선교사역에 마음을 주는 동안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지 못하게 된 결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장사를 해서 땅에서 보람을 찾는데 주력했던 것입니

다. 선교사님과 제가 대화하며 내린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땅에서 하늘장사를 한 목사나 선교사는 죽음을 앞두고도 절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원할 수가 없는 것은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팔아 땅의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죽음이 임박해서도 마음이 하늘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귀착점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2절 하반부를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만나고 접촉하여 느끼는 동안 비로소 입술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나무입니다. 또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돈을 열매 맺고자 하는 나무입니다. 또 교인의 숫자를 최고로 여기는 목사님은 부흥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나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귀착점으로 삼고 하나님을 열매 맺는 나무로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매로 맺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3절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3절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의 힘을 빌리려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고아는 스스로 힘이 없고 외부의 힘을 동원할 수도 없으며 지킬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성인은 부모가 없어도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고아가 주의 긍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민들이 앗수르의 힘을 빌리려 했듯이 외부의 힘을 끌어들일 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힘을 빌어서라도 지키고 확장시켜야만 하는 가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전혀 별 볼일 없는 고아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귀착점으로 여기며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아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 몸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자녀 앞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방치된 고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아처럼 된 마음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까지 가신 길을 따라 가면 아버지께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삶은 방치되지 않습니다. 5~7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삶이 복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때문에 항상 기쁘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복지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복지가 되는 이 역설적인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은 마음의 귀착점이 되셔야만 합니다. 모로 가면 서울로 갈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귀착점으로 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길 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신 동선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귀착점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고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고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귀착점으로 삼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고아의 마음상태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아버지께 귀착되게 하시며, 내 마음이 떠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